

# 오늘의 주요 언론보도

- 2023년 12월 19일 -



주요 기사내용		해당부서	보도매체
○	주간농사정보-13면	기술지원조정과	제민일보
○	주간 농업·농촌소식-7면	기술지원조정과	제주신문
○	농업농촌정보-11면	기술지원조정과	제주일보
○	주간 농업농촌소식-6면	기술지원조정과	한라일보
○	고흥에 ‘제주 물류 전진기지’ 구축 박차-2면	-	뉴제주일보
○	제주도 단위 ‘식량 자생력’ 높인다-2면	-	제민일보
○	우수 농촌융복합 제품 할인 혜택 ‘가득’ -2면	-	제주매일
○	내일부터 더 강한 한파 찾아온다-4면	-	제주일보
○	2023년산 노지감귤 수출사업 ‘탄력’ -6면	-	한라일보
○	무 수확하는 고산리-6면	-	한라일보

(제민일보: 2023년 12월 19일)

○ 주간농사정보-13면

## 주간농사정보

◆ 주요 농작물 관리요령 안내

- 양파
  - 웃거름 1차 시비 : 10a당 요소 17kg, 황산가리 9kg
  - 극조생 12월 중하순, 조생 1월 상중순, 중만생 2월 중하순
- 마늘
  - 흑색썩음균핵병, 뿌리응애 발생 시 발병주 제거 및 적용약제 방제
- 양채류
  - 나방류 예찰 및 방제
  - 수확중인 포장은 농약안전사용기준 준수에 유의
- 가을감자
  - 기상 및 비대상황 따라 수확시기 판단
  - 무름병, 역병, 나방류 및 총채벌레 등 방제 필요
- 월동무
  - 월동 후 수확 예정 포장은 습해관리 철저
  - 나방류 예찰 및 방제
  - ※ 만감류 출하전 품질검사제 : 2024년 1월 15일까지
  - 신청대상 : 2024년 1월 15일 이전 한라봉, 천혜향 수확·출하 희망 농가
  - 신청장소 : 제주시 농정과,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 한라봉, 천혜향 상품 기준 : 당도 11.5브릭스, 산함량 1.1% 이하
- 담당부서 :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기술지원조정과 ☎ 760-1219

**제민일보 13**

(제주신문: 2023년 12월 19일)

○ 주간 농업·농촌소식-7면

2023-51호

## 주간 농업·농촌소식

**주요 농작물 관리요령 및 병해충 방제정보를 안내합니다**

- 양파
  - 웃거름 1차 시비 : 10a당 요소 17kg, 황산가리 9kg
  - 극조생 12월 중하순, 조생 1월 상중순, 중만생 2월 중하순
- 마늘
  - 흑색썩음균핵병, 뿌리응애 발생 시 발병주 제거 및 적용약제 방제
- 양채류
  - 나방류 예찰 및 방제
  - 수확중인 포장은 농약안전사용기준 준수에 유의
- 가을감자
  - 기상 및 비대상황에 따라 수확시기 판단 필요
  - 무름병, 역병, 나방류 및 총채벌레 등 방제 필요
- 월동무
  - 월동 후 수확 예정 포장은 습해관리 철저
  - 나방류 예찰 및 방제
  - ※ 만감류 출하전 품질검사제 : ~ 2024. 1. 15.
  - 신청대상 : 2024. 1. 15. 이전 한라봉, 천혜향 수확출하 희망 농가
  - 신청장소 : 제주시 농정과,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 한라봉, 천혜향 상품 기준 : 당도 11.5브릭스, 산함량 1.1% 이하

**문의사항**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기술지원조정과(760-7531~3)

12.19.

제주신문 7

(제주일보: 2023년 12월 19일)

○ 농업농촌정보-11면

**농업농촌정보**

**주요 농작물 관리 요령**

▲양파  
△웃거름 1차 시비=10a당 요소 17kg, 황산가리 9kg  
- 극조생 12월 중하순, 조생 1월 상중순, 중만생 2월 중하순

▲마늘  
△흑색썩음균해병, 뿌리응애 발생 시 발병주 제거 및 적용약제 방제

▲양채류  
△나방류 예찰 및 방제  
△수확중인 포장은 농약안전사용기준 준수에 유의

▲가을감자  
△기상 및 비대상황에 따라 수확시기 판단 필요  
△무름병, 역병, 나방류 및 총채벌레 등 방제 필요

▲월동무  
△월동 후 수확 예정 포장은 습해관리 철저  
△나방류 예찰 및 방제

▲만감류 출하전 품질검사제  
△2024년 1월 15일(월)까지  
△신청 대상=2024년 1월 15일(월) 이전 한라봉, 천혜향 수확·출하 희망 농가  
△신청 장소=제주시 농정과,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한라봉, 천혜향 상품 기준=당도 11.5브릭스, 산함량 1.1% 이하

▲담당부서=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기술지원조정과 (760-7531~3). **12.19.**  
**제주일보 11**

(한라일보: 2023년 12월 19일)

○ 주간 농업농촌소식-6면

 **주간 농업농촌소식**

**주요 농작물 관리요령 및 병해충 방제정보를 안내합니다**

□ 양파  
○ 웃거름 1차 시비: 10a당 요소 17kg, 황산가리 9kg  
- 극조생 12월 중하순, 조생 1월 상중순, 중만생 2월 중하순

□ 마늘  
○ 흑색썩음균해병, 뿌리응애 발생 시 발병주 제거 및 적용약제 방제

□ 양채류  
○ 나방류 예찰 및 방제  
○ 수확중인 포장은 농약안전사용기준 준수에 유의

□ 가을감자  
○ 기상 및 비대상황에 따라 수확시기 판단 필요  
○ 무름병, 역병, 나방류 및 총채벌레 등 방제 필요

□ 월동무  
○ 월동 후 수확 예정 포장은 습해관리 철저  
○ 나방류 예찰 및 방제

※ 만감류 출하전 품질검사제: ~ 2024. 1. 15.  
○ 신청대상: 2024. 1. 15. 이전 한라봉, 천혜향 수확·출하 희망 농가  
○ 신청장소: 제주시 농정과,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 한라봉, 천혜향 상품 기준: 당도 11.5브릭스, 산함량 1.1% 이하

**12.19.**  
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기술지원조정과 **(한라일보 6)**

(뉴제주일보: 2023년 12월 19일)

○ 고흥에 ‘제주 물류 전진기지’ 구축 박차-2면

## 고흥에 ‘제주 물류 전진기지’ 구축 박차

도-전남-고흥군, 물류산업 발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녹동신항 물류센터 구축해 농축산품 판로 확대 시동

제주산 청정 농축산품이 전남 고흥군을 기점으로 수도권을 넘어 세계로 뻗어나간다.

제주도와 전라남도, 고흥군은 18일 전라남도청에서 오영훈 제주도지사,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공영민 고흥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지역 물류산업 발전과 원활한 물류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제주와 고흥군의 녹동신항 간 해상운송산업 발전과 물동량 처리를 위한 물류시설 확충을 도모하기 위해 12.19.후 각 기관은 해상운송체계 뉴제주일보 2고 물류인프라 확대 등

을 위해 협력해나갈 방침이다.

세부적으로 녹동신항에 물류센터를 설치하기 위해 제주도는 안정적인 물동량 공급 및 화물선 운항 등을 도모할 예정이다.

전라남도는 녹동신항 항만기본계획을 변경하고 물류센터 설치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며 고흥군은 해당 예산을 확보해 물류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할 계획이다.

이날 협약에 나선 오영훈 지사는 “이번 협약은 광역자치단체와 광역기초자치단체가 협약을 맺는 매우 드문 사례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시대를 앞당기는데 선도적인 모델이 될 것”이라며

“제주의 농축산품이 녹동신항을 통해 새롭게 수도권과 세계로 향해갈 수 있는 통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피력했다.

김영록 지사는 “녹동신항을 제주와 육지 간 물류 유통의 거점이자, 남해안 해양관광산업을 대표하는 항만으로 키우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협약을 계기로 남해안 글로벌 해양관광벨트 조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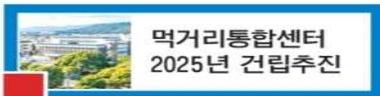
공영민 군수는 “녹동신항 부두 개발과 배후 부지, 물류센터 등 제주 물류 전진기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고흥군의 미래 전략 산업인 우주산업과 사람을 태우는 드론, 스마트팜 등을 제주와 연계해 서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고경호 기자 kkh@jejuibbo.net

(제민일보: 2023년 12월 19일)

○ 제주도 단위 ‘식량 자생력’ 높인다-2면

## 제주도 단위 ‘식량 자생력’ 높인다



도-JDC-농단협, 2025년 목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협의 지역내 생산·소비 계획수립 등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 역할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제주도농업인단체협의회가 제주도 단위의 ‘식량 자생력’을 키우기 위한 ‘제주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에 뜻을 모았다.

18일 제주도 등에 따르면 도와 JDC, 농단협 등 3개 기관은 최근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제주 미래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실천 방안 마련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12.19.담회는 2020년 5월 3개 제민일보 2하 ‘지역 먹거리 전략

수립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른 후속 조치로, 새 협업과제 발굴을 위해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특히 이날 간담회를 통해 새로운 주요 협업과제로 ‘2025년 제주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을 선정했다.

제주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제주도내 과잉 생산되는 농산물을 내부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수요처를 발굴하고 육지 등 외부에서 들어오는 농산물에 대해 기획생산을 모색하는 등 지역 단위 ‘푸드플랜’을 세우고 식량 자생력을 높이는 역할을 맡는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농림축산식품부의 2024년 국비 공모를 준비하고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각종 설명회 등을 추진한다.

JDC는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시행계획에 신규사업으로 반영된 ‘미래농업센터’ 사업 추진 과정에 먹거리통합지원센터와 관련한 협업사항을 강구한다.

아울러 향후 3개 기관은 제주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단계

별로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추진 과정에 나타나는 문제점을 원활히 해결하기 위한 정기간담회를 개최해 나간다.

이와 함께 이날 간담회에서 제주도농업인단체협의회는 ‘제주먹거리 실행전략 연구용역’을 실시한 김청순 지역농업네트워크협동조합 이사장을 초청해 △제주도 먹거리 정책 기본방향 설정 △농산물 과잉 생산에 따른 수급불안 해소 및 농가 소득 보장 방안 △광역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운영 방안 등에 대해 설명했다.

JDC는 미래농업센터 사업 추진 계획 내용을,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먹거리 기본계획’에 따라 2021~2025년 1조1148억원을 투입해 추진하는 4개 분야·14개 핵심과제를 소개했다.

구체적으로는 △제주도내 먹거리 자급률 제고 △건강한 식습관을 위한 식생활 교육 강화 △먹거리 복지 사각지대 해소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설립 계획 등 목표를 공유했다.

김수환 기자

(제주매일: 2023년 12월 19일)

○ 우수 농촌융복합 제품 할인 혜택 ‘가득’ -2면

## 우수 농촌융복합 제품 할인 혜택 ‘가득’

제주도, 22일 ‘송년 세일 페스타’ 개최  
연말감사 시중가 대비 40% 특별 할인

제주도의 우수한 농촌융복합산업 제품을 시중가보다 40% 이상 할인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는 장이 들어섰다.

제주도는 22일 도청 민원실 입구의 이면도로에서 ‘도민과 함께하는 송년맞이 농촌융복합산업 제품 세일 페스타’를 개최한다.

도와 제주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올해를 마무리하며 농촌융복합산업 제품을 도민에게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식·육가공 등 가공식품, 건강식품, 전통주, 화장품 등 우수한 농촌융복합산업 제품을 송년맞이 크리스마스 선물세트로 다양하게 구성한다. 가격은 시중가보다 40% 이상 낮게 책정한다.

제주매일 2에는 어린이합창단(클럽자자



어린이합창단)이 캐럴 공연을 펼쳐 따뜻한 연말 분위기를 자아낼 예정이다.

도는 이와 함께 제주산 돼지고기와 제주산 당근 최대 40% 할인행사, 청년장애 인카페(플로베) 유기농 커피 및 화분 전시판매 등을 병행한다.

또한, 도와 센터의 지원을 통해 생산된 인증업체 협업 기획상품(식충식품 체험 키트, 제주하귤 이너뷰티 콜라겐)과 현장 코칭 연계 후속지원사업 상품들도 전시한다.

(제주일보: 2023년 12월 19일)

○ 내일부터 더 강한 한파 찾아온다-4면

## 내일부터 더 강한 한파 찾아온다

20일 최고기온 5~7도·강풍 더해져 체감온도 영하···23일까지 눈 예상

한반도로 북극 한파 유입···24일부터 평년기온

지난 주말 제주를 강타했던 한파가 잠시 주춤하고 있지만 20일부터 다시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18일 제주지역은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낮 최고기온은 제주시(북부) 4.8도, 서귀포(남부) 6.4도, 성산(동부) 5.2도, 고산(서부) 4.4도를 기록하면서 전날(17일)보다 2~3도 가량 올랐다.

또한 전날 기승을 부렸던 태풍급 강풍도 잠잠해지면서 체감온도도 기온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기상청은 19일에도 낮 최고기온이 8~11도까지 오르면서 평년과 비슷하 ~~12.19~~ 낮은 정도까지 회복할 ~~제주일보 4~~다.

하지만 20일부터는 한반도가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권에 들면서 북쪽의 찬 공기가 유입돼, 기온이 더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기상청은 예보했다.

이날 낮 기온은 5~7도로 평년(11~13도)보다 4~8도 낮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여기에 초속 20m 내외의 강한 바람까지 불면서 체감온도는 영하권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20일부터 오는 주말까지 유럽과 우랄산맥 쪽의 기압능이 발달, 북쪽의 찬 공기가 이를 타고 한반도로 바로 유입되는 이른바 ‘북극 한파’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해수면 온도가 9~14도 수준으로 평년보다 0.5도 높은 서해 위로 영하 30도의 찬 공기가 지나가면

서 눈구름대가 형성, 한반도에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은 제주에 많은 눈과 함께 한파가 이어지다가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을 기점으로 서서히 기온이 오르면서 다음 주에는 평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지난 주말 제주 산간에 발효됐던 대설 특보는 모두 해제됐지만 기상청은 18일 밤 산간을 중심으로 또 다시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보고 대설 예비 특보를 발효했다.

예상 적설량은 중산간에 1~3cm, 산간에 3~8cm의 눈이 더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18일 한라산 지점별 적설량은 사제비 오름 24.1cm, 삼각봉 23.9cm, 어리목 22.6cm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한라산국립공원은 한라산 탐방로 7개 모든 코스의 탐방을 전면 통제했다.

김두영 기자

(한라일보: 2023년 12월 19일)

○ 2023년산 노지감귤 수출사업 ‘탄력’ -6면

# 2023년산 노지감귤 수출사업 ‘탄력’

11월말까지 2480여t 수출... 전년 동기 대비 44% 늘어  
물량 확보 어려움으로 당초 목표에는 미치지 못할듯

2023년산 노지감귤 수출사업이 탄력을 더하고 있다.

18일 농협제주지역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11월말까지 수출 완료된 2023년산 노지감귤은 총 2481t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723t에 비해 44% 가량 늘어난 물량이다.

2023년산 노지감귤 주요 수출국으로는 러시아·미국·캐나다·싱가포르·12.19.시아 등이 꼽힌다. **한라일보 6**수출은 지난 10월말

시작, 11월말 현재까지 모두 1289t이 수출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3.7% 증가했다. 미국은 11월말 기준 228t으로, 전년 동기 비 6.5% 늘었다. 캐나다로의 수출은 11월말 기준 422t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62.9% 증가했다. 또 싱가포르·말레이시아로의 수출은 무려 82~113% 증가하는 등 탄력을 더하고 있다.

2023년산 노지감귤 수출은 10월부터 시작했다. 제주감귤농협은 지

난 10월 26~27일 캐나다 수출을 위한 감귤 선과작업 후 부산항으로 이송했다. 이틀간 선과된 물량은 총 53t이다. 이들은 부산항에서 선박에 실려 캐나다로 수출됐다.

2023년산 노지감귤 수출 물량은 당초 계획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열과 피해 등으로 감귤 생산량이 줄었을뿐만 아니라 내수가격 호조로 수출물량 확보에 어려움이 적잖기 때문이다. 제주농협 등은 당초 4000t 이상을 수출할 계획이었지만 지난해와 비슷한 3000t 내외에 그칠 것으로 예측된다.

제주감귤 수출은 지난 2019년

2304t에 이어 2020년 5996t, 2021년 6637t 등 해마다 증가세를 이어 왔다. 하지만 2022년 들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수출길이 막히는 바람에 그해 수출물량은 3260t으로 줄었다. 특히 제주감귤 최대 수출국인 러시아로의 수출은 2021년 5460t에서 2022년 1760t으로 급감했다.

제주농협 관계자는 “수출물량 확보에 어려움이 적잖아 올해 2023년산 노지감귤 수출은 당초 목표치에 미치지 못할 전망”이라며 “하지만 수출시장 유지 등을 위해 제주감귤 수출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영준기자**

(한라일보: 2023년 12월 19일)

○ 무 수확하는 고산리-6면



12.19. 한라일보 6

무 수확하는 고산리 18일 제주도 한경면 고산리 농경지에서 농민들이 무 수확 작업을 하고 있다.

강희만기자